

1. 다음 <사례>와 <보기>를 읽고 이어지는 물음에 순서대로 답하시오.

1-1. <사례>의 쟁점을 밝히고, 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야 하는 세부 쟁점들을 그 논의의 필요성과 함께 열거하시오.

1-2. <보기>의 [1안], [2안], [3안] 중 하나를 해결 방안으로 채택하고, 채택한 방안이 적절한 이유를 위 세부 쟁점별로 논거를 제시하며 전개하시오.

1-3. 본인의 주장에 대해 가능한 반대 의견이나 입장을 설명하고 반박하시오.

1-4. 최종 결론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 <사 례> —

A국 공공기관은 채용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대체로 매년 응시자의 3%만이 합격한다. 채용 시험의 합격은 직업적·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므로, 능력과 노력에 따른 합당한 보상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응시자들의 사회적 배경, 즉 부모의 직업·수입·학력과 당사자의 출신 지역 등을 계량화하여 분석·비교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대다수 합격자의 '사회적 배경 지수'가 불합격자의 평균적인 사회적 배경 지수를 훨씬 상회하였고, 또 이러한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그 때문에 이런 채용 방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게 되자, A국 정부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보기>의 안들이 제시되었다.

— <보 기> —

[1안] 모집 인원 전체를 채용 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되, 사회적 하위 계층의 지원자에게 사회적 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2안] 모집 인원의 80%는 채용 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20%는 채용 시험 성적, 최종 학력, 학교 성적, 봉사 실적,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 고려한 심사를 통하여 채용한다.

[3안] 모집 인원의 80%는 채용 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20%는 사회적 하위 계층 지원자 중 최소한의 직무 수행 기본능력을 고려하고 봉사활동 경력 등에 나타나는 공공적 지향과 태도를 평가하여 선발한다.

2. 다음 <사례>와 <보기>를 읽고 이어지는 물음에 순서대로 답하시오.

- 2-1.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 한 가지를 <보기>를 참조하여 밝히고, 그것이 왜 가장 중요한지 설명하시오.
- 2-2. 선택한 쟁점을 해결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입각하여 쟁점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논증하시오. (여러 개의 원칙을 제시해도 무방함)
- 2-3. 본인의 주장에 대해 가능한 반대 의견이나 주장을 설명하고 반박하시오.

— <사 례> —

매너가 중시되는 야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불문율이 존재한다. 만약 상대가 매너에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투수가 빈볼(고의로 상대 타자 몸을 겨냥해서 던지는 공)을 던져서 응징하는 것 또한 흔히 인정되는 불문율이다. 투수의 빠른 공을 맞은 타자는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2016년 9월 1일 열린 甲 팀과 乙 팀의 경기에서 빈볼이 등장했다. 빈볼 상황은 다음과 같다. 그 전날 경기에서 甲 팀의 선수 A는 5회까지 팀이 9:2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乙 팀을 상대로 도루를 했고, 이날은 8:0으로 앞선 1회부터 도루를 했다. (야구에서는 큰 점수 차이로 이기고 있을 때는 도루를 하지 않는 것이 매너다.) 이날 경기에서 A는 3회와 6회 두 차례에 걸쳐 공에 맞았는데, 특히 6회 맞은 공은 누가 봐도 명백한 빈볼이었다. 乙 팀의 투수 B가 처음 두 개의 공을 몸 쪽에 바짝 붙인 위협구로 던진 데 이어, 세 번째 공으로 기어이 A를 맞추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는 B에게 곧장 달려 나갔고, 甲 팀과 乙 팀의 선수 전원이 경기장에서 몸싸움(벤치클리어링)을 벌이게 되었다. 심판은 B를 퇴장시켰고, 乙 팀의 감독 Y는 甲 팀의 보복성 빈볼을 우려하여 자기 팀 주축 선수들을 교체했다.

빈볼을 누가 지시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Y가 정황상 유력해 보이나,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빈볼을 지시한 사람을 밝히지 않는 것 또한 야구계의 오랜 관습이기 때문에 누군지 드러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다만 B가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며, 어쨌거나 빈볼을 던진 건 B임에도 불구하고 B를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부는 오히려 매너 없는 행위로 상대를 자극한 A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야구 리그를 총괄하는 백구야구위원회에서는 B에게 위원회 벌칙내규에 의거하여 제재금 300만원과 출장정지 7경기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Y에게 벌칙내규를 적용하여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乙 구단에게도 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甲 팀 감독 X: 첫 경기에선 5회 9:2로 앞선 상황에서 도루를 했고, 두 번째 경기에선 1회 8:0에서 도루를 했다. 이게 예의를 저버린 야구인가? 첫 경기는 결국 연장전까지 갔고, 두 번째 경기는 겨우 1회였다. 그리고 선수가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아무리 야구에서 관습이나 불문율이 중요하다 해도 선수의 몸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빈볼은 또다시 보복성 빈볼을 부를 뿐이다. 내 선수가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어떤 감독이 가만히 있으려 하겠는가? 상대 팀에 피해를 주면 자신의 팀에도 피해가 간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乙 팀 감독 Y: 야구는 전쟁이 아니다. 매너를 갖춘 스포츠다.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팀의 승리나 개인 기록만을 위해 경기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결국 양 팀 다 손해를 본다. 팬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느 감독이 빈볼을 던지라고 하겠는가? 아마 B도 실수로 그랬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결론에 형평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는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없지 않았나? 앞으로 빈볼 논란이 생기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모두 감독의 지시로 판단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뜻인가?